

# 대원제약, 매출 신기록 행진... 비만치료 등 지속가능성 강화

10개년 연간 성장률 12.7%  
해열제, 감기약 등 매출 견인  
비만 치료제 시장 도전장



펠루비에스 300정

대원제약이 매출 확대에 외형 성장을 이뤄내고, 국산 신약부터 후속 파이프라인까지 확보해 연구개발에도 속도를 내는 등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대원제약은 지난 2024년 호실적을 기록하며 연간 최대 매출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대원제약은 지난 2024년 3분기 별도 기준 누적 실적으로 매출액은 4035억원, 영업이익은 326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15.5%, 영업이익은 91.8% 증가한 규모다.

대원제약은 앞서 지난 2023년 연간 매출액 5000억원을 돌파한 데 이어 연간 매출액을 새롭게 경신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로 최근 10개년 연간 성장률은 12.7%에 달한다는 것이 대원제약 측의 설명이다.

이러한 성장세에 대해 대원제약은 자사 핵심 제품군의 매출 성과가 주요

했다는 분석을 내놨다. 특히 대원제약은 '펠루비' 제품군을 확장해 국내 의약품 시장에서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대원제약이 최근 새롭게 선보인 '펠루비에스정'은 기존해열진통소염제 '펠루비정'에 트로메타민염 성분을 추가한 전문의약품이다. 펠루비에스정은 기존 약물 대비 높은 용해도를 갖췄고, 위장장애 부작용은 낮춘 것이 특징이다.

대원제약은 일찍이 지난 2007년에 제12호 국산 신약으로 골관절염 진통제 '펠루비정'을 내놓은 후 적응증을 추가하고 복용 편의성을 높이는 등 자



진해거담제 '콜대원'

/대원제약

체 제품 개발에 집중해 왔다. 그 결과, 대원제약은 펠루비정, 펠루비서방정 등 펠루비 시리즈를 구축했다.

이와 함께 대원제약은 골관절염 치료제 '신바로정', 투석지연제 '레나메진', 고중성지방혈증 치료제 '티지페논' 등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제품 모두 지난 2023년 기준 연간 100억원대의 매출을 올려 대원제약 매출 성장 기반이 됐다. 지난 2024년 3분기에도 신바로정, 레나메진, 티지페논 등은 이미 각각 누적 매출액 128억원, 126억원, 119억원 등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문약품뿐 아니라 일반의약품인

진해거담제 '콜대원'도 대원제약의 매출을 견인하는 효자다. 2024년 3분기 기준 콜대원의 누적 매출액은 651억원으로 대원제약의 주력 상품으로 자리잡았다.

대원제약은 앞으로도 연구개발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대원제약은 현재 고지혈증 신약 후보물질 DW-4301, 자궁내막증을 위한 DW-4902,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DW-4121 등의 후속 파이프라인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대원제약은 차세대 의약품으로 주목받고 있는 비만 치료제 개발에도 도전장을 냈다. 경구용 신약 후보물질인 DW-4222의 경우 임상 2a상을 종료했다. 또 다른 파이프라인인 DW-1022는 피하주사형 비만 치료제를 패치 제형으로 제형 및 투여경로를 변경한 것이다. 대원제약은 라파스와 함께 글로벌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의 비만 주사제 '위고비'를 마이크로니들 패치 형태로 전환하기 위한 DW-1022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지난 10일 유한양행 본사에서 진행된 '반려동물 면역항암제 박스루킨-15 업무협약식'에서 조옥제 유한양행 대표이사(오른쪽)와 이제중 박셀바이오 대표이사(왼쪽)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유한양행

## 유한양행-박셀바이오 '박스루킨-15' 판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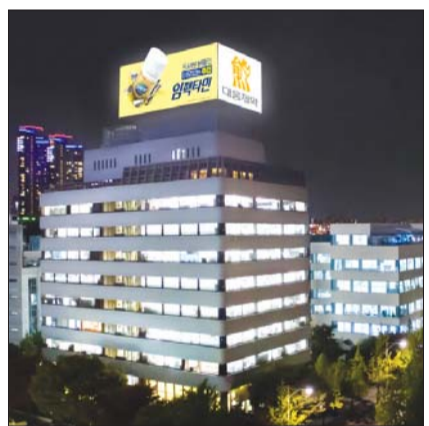
유한양행이 지난 10일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유한양행 본사 15층 타운홀 미팅룸에서 면역항암제 개발 전문회사 박셀바이오와 '박스루킨-15' 마케팅과 판매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박스루킨-15'는 박셀바이오가 국내 최초로 개발한 반려견 전용 유선종양면역항암제로 지난 2024년 8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품목허가를 받았다.

유한양행은 박스루킨-15를 정식 공급하면서 현재 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반려동물과 보호자들에게 새로운 치료법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청하 기자

# 대웅, 'K-오가노이드 치료제' 글로벌 상용화 이끈다

산자부 소재부품기술개발 과제 선정  
"국내 바이오 산업 자립도 높ی겠다"



대웅제약 전경

대웅이 미니장기 '오가노이드' 기반 재생치료제 개발과 대량 생산을 통한 글로벌 상용화에 뛰어든다.

대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2024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 과제에 재생의료 분야의 핵심 기술로 평가받는 '오가노이드 재생 치료제 대량 생산 기술 개발' 과제가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오가노이드란, 우리 몸 속 장기를 모방해 만든 3차원 형태의 조직을 말한다. 이 오가노이드를 환자의 손상된 조직이나 장기 재생에 사용하는 것이 '오가노이드 재생 치료제'다. 심장, 간, 신장 등 주요 장기나 조직의 기능이 손상

된 환자에게 적용돼 장기 재생을 돕고, 난치병에 활용될 수 있다.

이번 과제는 총 3개의 세부 과제로 나뉜다. 1세부 과제는 고품질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대량 생산을 위한 핵심

소재 및 배양 용기 개발을 목표로 하며, 2세부 과제는 고품질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생산 실시간 모니터링 및 품질평가용 핵심 부품 개발에 집중한다. 마지막으로 3세부 과제는 고품질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대량 생산 자동화 공정 기기 개발을 다룬다. 이 중 대웅은 1세부 주관기업의 총책임 기관이자, 3개 세부 과제 전체를 총괄한다.

대웅은 이번 과제의 총괄 기관으로서 1세부, 2세부, 3세부 연구팀 간의 긴밀한 협력과 원활한 과제 수행을 이끌어갈 예정이다. 1세부 과제의 주관 기업으로서 대량 배양을 가능하게 하는 배양 용기, 고품질의 세포외 기질(ECM), 성장 인자, 첨가물 등 '핵심 소재' 개발을 목표로 성장 호르몬 등 단백질

및 화학 물질을 제공해 연구를 지원하고, 소재의 성능 평가를 통해 상용화 가능성을 검증한다. 2세부·3세부 과제와 협력해 배양 환경을 자동으로 관리하고 특수 배지와 시약의 정밀 분배가 가능한 '자동 생산 공정'을 개발해, 실시간 품질 모니터링과 데이터 분석으로 오가노이드 성장을 최적화하고 생산성과 품질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유지민 대웅제약 바이오R&D센터장은 "대웅은 이번 과제를 통해 단순히 기술 개발에 그치지 않고, 오가노이드 재생 치료제의 글로벌 상용화를 앞당길 계획"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급성장하는 재생의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내 바이오 산업의 자립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세경기자 seilee@

## LG생활건강 '팻-페밀리' 론칭

LG생활건강이 반려동물 전문 브랜드인 '팻-페밀리'를 새롭게 선보인다고 13일 밝혔다. 팻-페밀리 브랜드 첫 출시 제품은 LG생활건강의 59년 세제 제조 노하우를 담아 만든 피지 '팻-페밀리 세탁세제'와 '세탁조 클리너'이다.

LG생활건강에 따르면, 피지 '팻-페밀리 세탁세제'는 반려동물 털 부착과 냄새의 원인인 누적된 기름 왁스를 제거하는 제품이다. 세탁 한 번으로 반려동물 암모니아 냄새 99%, 털은 90%까지 제거 가능하다.

'피지 팻-페밀리 세탁조 클리너'는 세탁조에 남은 동물 털을 관리하는 제품이다. 단 1회 사용만으로 반려동물 털을 99% 용해하고, 물때와 다른 오염물질도 함께 청소할 수 있다. /이청하 기자

## 나라셀라, '안동소주' 글로벌 브랜드 육성

안동시 투자 MOU... 생산 인프라 확충  
니시주조, 프라팜 등 글로벌 기술 제휴

비 구축을 위해 CJ올리브네트웍스와 협력해 스마트 팩토리 구축을 준비 중이다. 올 상반기 160만 병을 생산할 수 있는 제1공장을 착공할 예정이다. 2028년 착공 예정인 제2공장은 연간 450만 병 규모로 확장해 국내외 수요를 동시에 대응할 예정이다.

국내 와인 유통업계 1호 상장사 나라셀라가 안동소주를 세계적인 브랜드로 도약시키기 위해 대규모 투자를 진행한다.

나라셀라는 최근 경상북도, 안동시와 300억원 규모의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안동소주의 지역기반 생산 및 사업 거점 확보에 나섰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와의 상생을 도모하며 안동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함과 동시에 기존 안동소주 기업과 차별화된 규모와 품질을 갖출 계획이다.

여기에 일본 유명 증류소 설비를 도입해 생산 효율성과 품질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글로벌 기술 제휴와 주조법 혁신을 위해 일본 증류주 소주의 명가인 '니시주조'와의 협약을 시작으로 프랑스 꼬냑 제조사 '프라팜'(Frapin), 영국의 위스키 제조사 '더레이크스'(The Lakes) 증류소 등 글로벌 파트너들과의 기술 제휴 확대를 준비 중이다.

나라셀라는 세계적인 수준의 생산설

/신원선 기자 tree6834@

## 한미약품·GC녹십자, 'LA-GLA' 국내 임상 (파브리병 치료제)

식약처 임상 1/2상 IND 승인

한미약품과 GC녹십자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파브리병 신약개발이 글로벌 임상에 본격 돌입한다.

한미약품과 GC녹십자는 지난 9일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파브리병 치료제 'LA-GLA' 임상 1/2상 시험계획서(IND)를 승인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임상은 파브리병 환자를 대상으로 'LA-GLA'의 안전성, 내약성, 약동학, 약력학 등을 평가한다.

양사는 앞서 지난 2024년 9월에는 미국 식품의약품(FDA)에서도 'LA-GLA' 임상 1/2상 시험계획서(IND)를 승인받아, 이번 국내 식약처 승인으로 다국가 임상연구를 속도감 있게 추진

하게 됐다.

파브리병은 성염색체로 유전되는 희귀질환으로 '리소솜 축적질환(LSD)'의 일종이다. 현재 파브리병 환자는 유전자 재조합 기술로 개발한 효소를 정맥 주사하는 방식인 효소대체요법으로 주로 치료한다. 이러한 1세대 치료제는 2주에 한번씩 병원에 가서 수시간 동안 정맥 주사를 맞아야 하는 불편함, 정맥 주입에 따른 치료 부담, 진행성 신장기능 약화에 대한 유효성 부족 등의 한계점이 있다.

한미약품과 GC녹십자가 공동 연구 중인 'LA-GLA'는 이러한 1세대 치료제의 한계점을 개선한 '차세대 지속형 효소대체요법 치료제'로 월 1회 피하투여 용법으로 개발되고 있다. /이청하 기자

## 보령컨슈머헬스케어 서정욱 대표이사 선임

보령컨슈머헬스케어가 최근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고 서정욱 대표이사(사진)를 선임했다고 13일 밝혔다.



서 신임 대표이사는 1977년생으로 국내 제약 업계에서 폭넓은 경력을 갖춘 영업·마케팅 분야 전문가다.

서 신임 대표는 "고객의 건강한 일상을 위해 차별화된 브랜드를 바탕으로 보령컨슈머헬스케어가 꼭 필요한 제품을 개발하고 공급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